



새로운 KBS 함께 하겠습니다

2면

45기 신입·경력직원 소개

45기 신입·경력직원들이 4월 2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3주간 집합교육을 마치고 일주일간 본사에서 OJT를 받았다. KBS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차기 대들보들을 KBS 사보가 만났다. (2면 계속)

3면

달라진 KBS, 새로운 뉴스

KBS 뉴스가 사실을 넘어 진실을 찾는 뉴스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뉴스9>의 진행은 김철민-김솔희 앵커가 맡는 등 새로운 앵커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3면 계속)

KBS 45기 새 얼굴이 났다!



2018년 4월 1일자로 입사한 45기 직원은 108명으로
신입 103명(영상그래픽 1명 포함), 경력 5명이다.



PD(18명)

“KBS를 먹여 살릴 콘텐츠!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취재기자
(12명)

“사랑받고 신뢰받는 KBS가 되도록
45기 신입기자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나운서
(3명)

“국민이 사랑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촬영기자
(11명)

“역사를 기록하는
신념의 기록자가 되겠습니다!”



영상제작
(10명)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으로
시청자분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방송기술
(32명)

“정성을 다해 KBS의 좋은 방송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방송기술인들이 되겠습니다!”



방송경영
(16명)

“시민과 함께하는
KBS가 되도록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력직원
(5명)

“신입 같은
체력과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 사장이 났다!



사장 강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마디는?

“공영방송 KBS 시민의 품으로”
“30년 차인데 3주 된 것 같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찾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KBS 뉴스가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KBS가 환골탈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민의 힘이 KBS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만 바라보고 뚝뚝 걸어가겠습니다.” (김철민 앵커)

01 “권력과 자본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로 개편한 KBS 뉴스가 내건 슬로건이다. 4월 13일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뉴스 앵커 기자간담회’에는 달라진 KBS 뉴스를 책임질 새 얼굴들이 모두 모였다. 메인 뉴스인 <뉴스9>은 평일 김철민-김솔희 앵커가 주말에는 한승연-김지원 앵커가 진행한다. <뉴스9> 김철민 앵커는 “시청자들은 단순한 사실만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맥락을 파헤치길 원한다”며 “공영방송의 기자로서 권력과 자본의 외압에서 흔들리지 않고 약한 자를 대변하려는 DNA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침을 여는 <뉴스광장>은 박주경-이랑 앵커가,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라인>은 김태욱-이각경 앵커가 맡았다. <뉴스광장> 박주경 앵커는 “KBS 뉴스의 새로운 슬로건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KBS 뉴스를 만들어가는 모든 기자들이 ‘이번만큼은 KBS 뉴스를 제대로 바꿔야겠다’는 각오와 의지, 결기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새 앵커들은 사건 이면의 진실을 밝히고, 권력과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뉴스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02 10년 차 아나운서 메인 뉴스 앵커 발탁

KBS는 신임 앵커를 발탁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앵커를 모집했고 1차 실무자 평가, 2차 국장단 평가로 최종 선발했다. 10년 차 아나운서로 <뉴스9> 진행을 맡게 된 김솔희 아나운서는 “지금까지 메인 뉴스는 대부분 2~3년차 젊은 여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오디션을 통해 10년 차인 제가 선발됐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고민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9>의 주말을 담당하게 된 ‘젊은 피’ 한승연 기사는 “청년층의 아픔과 애환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뉴스를 만들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앵커들이 만들어 갈 새로운 뉴스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03 ‘안정감과 참신함의 조화’...새 바람 예고

김태선 KBS 통합뉴스룸 국장은 새 앵커 선발 과정에서 “안정감과 참신함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고 밝혔다. <뉴스9> 김철민 앵커는 사회부 팀장, 방콕 특파원 등을 역임한 베테랑 기자다. 과거 <뉴스9> 주말, <뉴스12>에서 안정감 있는 진행을 선보였다. 김솔희 아나운서는 <6시 내고향>, <명견만리> 등 대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다. 데일리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순발력과 친근함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주말 <뉴스9>을 맡은 11년 차 한승연 기자와 스포츠 뉴스를 진행했던 김지원 아나운서는 밝고 참신한 느낌으로, <뉴스라인>을 진행하게 된 김태욱 기자와 이각경 아나운서는 능숙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 <뉴스광장>의 박주경 기자-이랑 기사는 여러 취재 부서를 거치며 현장 경험을 쌓은 중견 기자들로 차별화된 보도를 선보인다. 이 밖에도 낮 12시 뉴스에 범기영-이수정 기자, <아침뉴스타임>에는 오연중-백승주 아나운서, <뉴스7>에 박노원-김윤지 아나운서, <930뉴스>에 박지현 아나운서 등 대대적인 앵커 개편이 이루어졌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맞아 KBS 특집 방송 편성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KBS는 '보도 참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왜곡 보도와 오보 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KBS는 세월호에 대한 반성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다양한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KBS 뉴스, 다시 국민의 품으로

“KBS 뉴스로 인해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 당일 KBS <뉴스9>는 특집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철민, 김솔희 두 앵커는 사죄의 멘트로 뉴스를 시작했다. 이후 세월호 특별취재팀에서 준비한 연속 보도가 이어졌다.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 위주의 스트레이트 아이템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나갔다. 또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아이템으로 현 선체조사위, 곧 출범할 2기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진상 규명 과정에 기여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무엇보다 정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난 4년간의 '세월호 보도 참사'를 야기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 유족의 입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취재 제작 보도에 힘썼다.



따뜻함을 나누는 KBS 프로그램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대로 KBS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 슬픔을 웃음과 감동으로 승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방송했다. 4주기 당일 KBS 홀에서 열린 추모 음악회 '기억 그리고 다시, 봄'에서는 양희은, 전인권 등이 참여해 추모 공연과 시 낭송으로 세월호 가족과 시청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4월 17일에 방송된 <시사기획 창-침묵의 세월>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침묵을 깨고 다시 세월호에 쓰인 베일을 벗겨가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4월 19일 방송된 <KBS 스페셜-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 직접 연극배우가 되어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치유의 연극 무대를 선보였다. 슬픔을 연극으로 승화시키는 무대 위 엄마 배우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KBS와 함께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6월, 2007년 8월 이후 11년 만이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에 방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KBS는 '2018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사로 협약을 맺고 정상회담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남북정상회담' 당일 뉴스 특보·특집 뉴스 편성

4월 27일 당일 KBS는 새벽 5시부터 <뉴스 특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실시간 소식을 현장감 있게 전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27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인 뉴스인 <뉴스9>은 남북정상회담 특집 뉴스로 마련된다. <뉴스9>은 방송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120분간 도라산 현지에서 진행된다. 특집 뉴스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 그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의 전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방송되는 <뉴스라인>도 밤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확대 편성해 남북정상회담을 심층 보도한다.

주관방송사 KBS,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방송

KBS는 4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주관사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KBS는 방송 분야에서 방송 주조정실 구축 및 운영, IBC 및 중계석, 국제신호 제작 배포 등 행사 전 과정에 대한 중계와 방송 지원 역할을 맡았다.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7일 밤 10시에는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에서 남북 문제 전문가들이 정상회담을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와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한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28일 아침 7시 50분에는 30년 전통의 남북관계 전문 프로그램 <남북의 창>이 특집으로 구성되며 5월 1일 <시사기획 창>에서는 '2018 판문점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화해의 장소로 거듭나게 된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본다.

국내외 시상식 휩쓴 KBS 콘텐츠



'뉴욕 페스티벌 TV&필름상' <순례> 등 5개 부문 수상

KBS가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했다. KBS는 4월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 뉴욕 페스티벌 TV&필름상'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순례-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가 다큐멘터리 부문, <시사기획 창-아가야 미안해>가 시사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받았고 <국시집 여자>가 드라마특집 부문 은메달을 수상했다. 또, <국민의 마음 캠페인-한국사람>이 방송사이미지홍보 부문 은메달, <2017년 대통령 선거 프로그램 및 개표 방송 그래픽>은 그래픽디자인 부문 동메달을 기록했다. '뉴욕 페스티벌 TV&필름상'은 1957년 시작된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으로 매년 세계 50여 개국에서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KBS는 9년 연속 수상해 뛰어난 제작능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인했다.



KBS, 5년 연속 방통위 방송대상 '대상' 영예

국내 방송 무대에서도 KBS 콘텐츠의 진가가 발휘됐다. 다큐멘터리 <순례>가 4월 23일 열린 '20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순례> 4부작은 2017 KBS 대기획 UHD 다큐멘터리로 삶이라는 순례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인간의 여정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 길을 걷는 과정 자체라는 묵직한 메시지와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영화적 장치, 압도적 영상미가 빛난 작품이다. KBS는 2014년 <의뢰, 8일간의 축제>, 2015년 <시대의 작창-판소리>, 2016년 <넥스트휴먼>, 2017년 <태양의 후예>에 이어 5년 연속 방통위 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마이너 인생을 강요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성장 로맨스 <쌈, 마이웨이>는 한류 프로그램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계열사 소식



KBS 미디어 'MIPTV 2018' 참가

KBS 콘텐츠의 해외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BS 미디어가 4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MIPTV 2018'에 참가했다. MIPTV(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는 1963년 처음 개최돼 55회 째를 맞은 세계 최대 영상물 콘텐츠 마켓으로 올해는 세계 100개국 3,736명의 바이어가 다녀갔다.

<같이 살래요> 등 KBS 대표 콘텐츠 수출 계약

KBS 미디어는 이번 행사에서 그리스, 터키, 대만, 태국 등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이름없는 여자>, <같이 살래요>, <힐러> 등 프로그램의 방송권과 포맷권, 전송권을 판매해 200만 불이 넘는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다큐멘터리 전문 스크리닝 행사(MIPDOC)에 <순례>, <요리인류2>, <코리안 지오그래픽>를 출품하는 한편, 포맷 전문 행사(MIP FORMATS)에서는 <배틀트립>, <더유닛> 등 새로운 예능 포맷을 피칭해 전 세계 바이어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너도 인간이니> 글로벌 마케팅 벌여

특히 'MIPTV 2018'에서는 메인 전시관 대형 배너 자리에 6월 방송을 앞둔 KBS 월화드라마 <너도 인간이니> 포스터가 걸려 세계 미디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또 이와 연계해 연출자인 KBS 차영훈 감독이 직접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터키, 캐나다, 홍콩 등 바이어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KBS N Life

음악토크쇼 <추억은 방울방울> 방송



모든 역사적인 순간에는 음악이 있다. KBS N Life에서 방송 중인 <추억은 방울방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와 작가 김동영 씨가 출연해 팝 음악을 통해 삶과 음악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음악토크쇼이다. 4월 15일 첫방송을 시작한 <추억은 방울방울>은 '광장에 울려 퍼진 노래', '시대의 아이콘'을 주제로 콜드 플레이의 'Viva La Vida', 마돈나의 'Like a Virgin' 등 전설적인 팝 음악을 소개하고 시대적 이야기를 펼쳤다. 또 방송에서는 방울밴드가 당일 소개되는 곡을 라이브로 연주해 시청자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주류와 비주류', '시대에 맞선 음악', '빛과 그림자' 등 시대적 주제와 팝 음악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추억은 방울방울>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KBS N Life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KBS 미디어, 방송 2주년 기념 「배틀트립」 출간

KBS 미디어와 <배틀트립> 제작진이 방송 2주년을 맞아 알짜 여행 코스와 팁을 담은 여행서 「배틀트립」을 출간했다. 그동안 방송에 소개됐던 여행지 가운데 시청률 1위를 한 레전드 코스와 방송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맛집, 가격 정보, 액티비티 예약법, 코스별 동선 지도 등을 담았다. 현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중이다.



KBS 아트비전, '2018 강화고려문화축전' 수주

KBS 아트비전이 7월 28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2018 강화고려문화축전'을 수주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고려의 몽고항쟁 당시 수도였던 강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KBS 아트비전은 팔만대장경 판각 및 이운 행사, 팔관회 및 연등회, 삼별초 출정식 등 행사 전반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KBS Kids, 가족뮤지컬 '숲의 요정 페어리루' 주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KBS Kids가 주최하는 가족뮤지컬 '숲의 요정 페어리루'가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울 양재동 더케이 아트홀에서 열린다. '숲의 요정 페어리루'는 KBS Kids 채널 방영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한일 최초로 가족뮤지컬로 제작돼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됐다.

단신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 미래 전략은?

오는 10월 세계공영방송 서울 총회 개최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참여하는 '2018 PBI 서울 총회(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Seoul 2018, 2018 세계공영방송총회) 운영위원회'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KBS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2018 PBI 서울 총회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로, 주관사인 KBS 대표단을 포함해 PBI 사무총장 토시유키 사토, 영국 BBC 편집정책본부장 데이비드 조단, 일본 NHK 방송총국 특별주간 아키노리 하시모토 등 주요 공영방송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에릭 울프 미국 PBS 부사장 등 4명은 화상회의로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KBS는 세계 공영방송사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총회 주제를 제안해 큰 공감을 얻었다. 올해 서울 총회 주제는 '플랫폼 대전환(Media's Next Big Bang: Strategic Initiatives for Connected Platforms)'이다.



BBC 사장, NHK 회장 등 세계 공영방송 CEO 대거 참석

오는 10월 총회에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토니 홀 사장과 일본 NHK의 우에다 료이치 회장을 포함해 미국 PBS와 프랑스 FT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 수장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특히 BBC의 토니 홀 사장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BBC가 아시아 대표 공영방송인 KBS가 주최하는 총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BI는 지난 1990년 KBS와 NHK(일본), CBC(캐나다) 등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함께 캐나다 토론토에서 창설한 국제공영방송기구로, KBS는 지난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다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세계 공영방송사 수장들의 G-20로 불리는 PBI 총회는 전 세계 공영방송 사장 등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해 날로 상업화되고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속에서 최신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이다.



정필모 신임 부사장 임명

KBS 신임 부사장에 공채 14기 정필모 기자가 임명됐다. 정 부사장은 KBS 입사한 이후 31년 동안 경제 전문 기자로서 취재와 제작 일선에 있었으며 경제부장과 1TV뉴스제작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경제전망대>, <미디어 인사이트> 앵커를 맡아 뉴스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KBS 정상화 등 핵심개혁 과제 추진

정필모 부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미디어 상생위원회를 책임지게 되며 미투운동으로 대변되는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와 해결, 예방을 위한 TF도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아나운서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바른 우리말 선생님'



KBS가 주관하는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사업인 '2018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이 이번 달부터 시작했다. 첫 강의를 4월 16일 서울 신목동중학교에서 진행했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퀴즈와 게임 같은 방송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가미한 방식으로 몰입도를 높였다. 앞으로 9개월 동안 이어질 강의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폐해를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마음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백령도와 울릉도에 있는 학교들도 선정해 도서지역에 대한 교육 혜택을 확대했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KBS 아나운서들이 초·중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우리말 교육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소리로만 재난을 경험한다면?! 라디오 드라마 '스프린터 언더월드' 인기



KBS 한민족방송의 <라디오 극장>이 새롭게 SF 장르를 선보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스프린터 언더월드'는 정이안 작가의 동명소설을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한 것으로 그동안 영상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웠던 재난 블록버스터 장르를 성공적으로 연출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영상 없이 다양한 음향효과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 청취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드라마 몰입을 높였다는 평이다. <라디오 극장>은 5월엔 흡수저 청춘들의 현실과 사랑을 그린 '서른의 반격'(손원평 원작/정혜진 연출), 6월엔 탐정물 '낙원남녀'(나혁진 원작/오수진 연출)가 방송될 예정이다. 또 여름엔 미스터리 스릴러 등의 계절감을 살린 작품도 계획 중이다.

평 원작/정혜진 연출), 6월엔 탐정물 '낙원남녀'(나혁진 원작/오수진 연출)가 방송될 예정이다. 또 여름엔 미스터리 스릴러 등의 계절감을 살린 작품도 계획 중이다.

KBS 2TV 수목드라마

슈츠



'장동건X박형식' 투톱 강력한 브로맨스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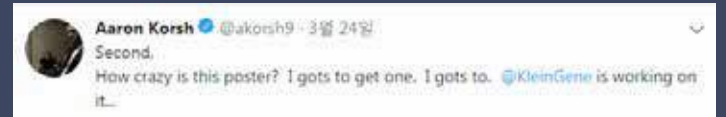
2018년 봄,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두 남자가 만났다. 국내 최고 로펌 강&함의 '에이스 변호사' 최강석(장동건 분)과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천부적인 기억력의 '가짜 신입 변호사' 고연우(박형식 분). 로펌 수석 파트너로 초고속 승진하게 된 최강석은 자신과 함께 일할 신입 변호사를 뽑는 과정에서 우연히 천재 청년 고연우를 만나게 된다. 사법고시 패스능력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고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고연우를 덜컥 신입 변호사로 채용한 최강석과, 최강석 덕분에 난생 처음 '기회'라는 것을 얻게 된 고연우, 두 사람의 아주 특별한 법정 플레이가 시작됐다.

미국 NBC 법정 드라마 <슈츠> 리메이크작

<슈츠>는 동명의 미드를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원작 <슈츠(Suits)>는 2011년 미국 NBC 유니버설에서 제작해 현재 시즌7이 방영중인 인기 드라마로 리메이크작이 탄생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원작에서는 뉴욕 최고 로펌 피어슨 하드먼을 배경으로 가브리엘 막트와 패트릭 J. 아담스가 호흡을 맞췄는데, 원작의 크리에이터와 배우가 드라마 방영 전 개인 SNS를 통해 한국판 <슈츠>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6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클래식한 멋의 정석' 장동건과 천의 얼굴로 늘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박형식이 한국판 <슈츠>를 어떻게 재해석해낼지,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2TV

미국판 <슈츠> 크리에이터 아론 코쉬 트위터



"How crazy is this poster? I gots to get one"
(포스터가 엄청나다! 나도 하나 갖고 싶어!)

가브리엘 막트(하비 스펙터 역) 트위터



"Like it?! I Love it!! Congrats Suits Korea!!"
(정말 좋아!! 한국판 슈츠 축하합니다)